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행실도

심화연구자 신 동 천(안그라픽스)

CONTENTS

제1부 서론

1장 행실도의 편찬 목적

1. 지식정보 전달 매체로서 행실도
2. 사람 경영을 위한 행실도

제2부 본 론

1장 행실도를 통한 조선시대의 정치와 유교

1. 행실도에 나타난 유교와 성리학
 - 1-1. 사단칠정과 삼강오륜
 - 1-2. 조선의 삼강오륜
2. 행실도의 정치적 합목적성
 - 2-2-1. 삼강행실도의 편찬
 - 2-2-2. 삼강행실도에 숨겨진 정치성

2장 행실도 판화에 대한 정보 디자인적 해석

1. 행실도의 조선시대 풍속 기록화로서 역할
 - 1-1. 조선의 정보 기록 문화
 - 1-2. 조선의 풍속 기록화(記錄畵)와 행실도
2. 행실도 판화의 제작 특성
 - 2-1. 행실도 판화의 구성 분석
 - 2-2. 행실도 판화의 표현 기법
3. 행실도의 지식정보 확산 방안
 - 3-1. 지식 정보 확산을 위한 행실도의 특징
 - 3-2. 행실도 반포에 나타난 지식 정보의 확산

제3부 결 론

1장 행동 교화를 위한 지식정보 디자인으로서의 행실도

1. 삼강오륜의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유교적 사람 경영
2. 그림을 통한 효과적인 지식정보 전달
3. 조선시대 신속한 지식정보전달 방안 모색

제4부 대표 디자인 추천

제 1부 서 론

1장. '행실도'의 편찬 목적

1_지식정보 전달 매체로서 행실도

정보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정보를 생성하기도 하며, 스스로 소멸되기도 한다. 마츠오카 세이코는 '정보문화학교 (1998)'에서 '인간은 정보의 동물이며, 편집하는 동물'이라고 했다. 또한, '정보란 편집되는 것이며, 편집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는 처음에는 구전(口傳)되어 오다가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림의 형태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문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과거 계급사회에서의 정보력은 권력을 의미했다. 인류가 기계문명을 접하기 전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의 헤게모니(hegemony)를 쥔 자들만의 특권이였다. 문자는 정보를 담고 있었고, 그것은 곧 국가나 집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는 처음에는 그림에 가까웠고, 이후 국가와 집단의 성격에 따라 상징, 기호, 암호화를 거쳐 현재 여러 가지 형태와 언어로 파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글은 앞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문자가 일부 기득권층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한글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이 한글이 창제된 계기가 일반 백성들의 문맹을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처럼, 『삼강행실도』 역시 한글 창제보다 앞선 1428년(세종 10)에 비슷한 이유로 간행되었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세종은 재위 초부터 유교(儒敎) 윤리를 강조하여 집현전을 두고 유교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도록 했으며, <주자가례>의 보급과 장려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세종 10년 진주의 김화(金禾)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세종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세종은 모든 것이 임금의 부덕한 탓으로 여기고 무지한 백성을 교화시킬 수 있는 서적을 편찬하도록 했다. 그것이 『삼강행실도』다.¹⁾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간행하면서 한자와 함께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림을 넣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림만으로 내용을 유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세종은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계기로 한자보다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문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삼강행실도』를 편찬하면서 느낀 것

1) 이수연(2003), 『조선시대 유교 윤리서 연구 - 세종조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4-5쪽 참조.

만은 아니겠지만 한글이 13년 후에 창제되는데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2_사람 경영을 위한 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서문²⁾과 반포교지³⁾를 통해 편찬의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서문은 권채(權採)가 쓰고, 반포교지는 세종이 내렸는데 두 글 모두 유교에서 말하는 인륜(人倫)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태조(太祖)는 유교를 국교로 삼아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몇몇 신하들은 국가를 정비하는 데 유교 이념을 강조하였고,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데 힘썼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태조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왕실에서 두 차례 왕자의 난이 일어나 세종은 피폐해진 민심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인 유교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것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치적 국가 운영 시스템 정비였다. 그것의 중심에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있으며, 그 중 삼강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다. 삼강의 내용과 풀이는 다음과 같다.

- 군위신강(君爲臣綱):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부위자강(父爲子綱):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 부위부강(夫爲婦綱):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2) 천하의 달도(達道) (이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을 가르키는 것으로, 달도란 천하(天下)고금(古今)을 통하여 누구나 다같이 행하는 도리를 뜻한다)에서 삼강이 그 으뜸에 해당하니, 이는 진실로 경륜(經綸, 나라를 경영해 다스리는 일)의 큰 법이며 만화(萬化, 온갖 교화)의 본원입니다. (중략) 주상 전하께서 근신(近臣)에게 머아시기를 “삼대(三代)가 잘 다스려졌음은 모두 인륜(人倫)을 밝혔기 때문인데, 후세에 교화가 허물어져서 백성이 친하지 아니하여,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큰 인륜에 있어서 모두 본연의 천성에 어두워 항상 감감한 데로 떨어졌다. 그러나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를 지키며 습속(習俗)에 따라 휩쓸리지 아니하고 보고 듣는 이를 감동하게 하는 자도 많았다. 내가 그 특이한 자를 취하여 도(圖)와 찬(贊)을 만들어서 중외(中外)에 반포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마 어리석은 지아비나 지어미들도 모두 쉽게 보고 감동하여 분발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또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삼강행실도』, 序)2) 내가 생각하건대, 하늘이 내려 준 착한 성품과 사람이 지키는 떳떳한 도리는 생민(生民)으로서는 누구나 다 같은 것이며, 인륜(人倫)을 돈돈히 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는 것은 나라를 가진 자의 선무(先務)이다. 그런데 세상의 도리가 이미 떨어지고 순박한 풍속이 예전과 같지 않아 천경(天經, 하늘의 도리와 법칙)과 인纪(人紀)가 점점 진실을 잃고 있어, 신하로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아들로써 아들의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아내로서 아내의 덕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진실로 탄식할 일이다. (중략) 그래서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효자, 충신, 열녀 중에서 뛰어나게 본받을 만한 자를 가려서 편집하되 일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아울러 시찬을 덧붙이게 하였으나, 그래도 어리석은 남녀(愚夫愚婦)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이름을 『삼강행실』이라 하여 이를 인쇄해서 널리 반포하는 바이다. (『삼강행실도』 頒布教旨)

위의 덕목 중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은 국가 경영자의 마인드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덕목이며, 백성과 임금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매개체는 ‘행실도’인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정경원은 디자인경영(2006)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보의 적절한 흐름이 필요하며, 수잔 모흐만 등은 “적절한 정보의 공유는 동시 다발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수직적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흐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 바꿔 말하면 ‘행실도’의 보급은 임금이 백성을 훈육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학습하고 전파하기 위한 교화서(敎化書)인 셈이다. ‘행실도’를 목판본으로 제작한 것이나 글과 함께 그림을 삽입한 것은 가능한 많은 책을 보급하고, 가능한 많은 백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실도’ 류 중 처음 편찬된 세종 조의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유교의 삼강오륜과 조선 정치의 관계, 그에 따른 조선의 유교적 사람 경영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유교적 지식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행실도’는 어떤 판화기법으로 제작했는지 연구했다. 또한, 『삼강행실도』 이후에 편찬된 다른 ‘행실도’ 류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했다.



〈그림1〉 삼강행실도 열녀편의 표지와 내지 (양산시 유형문화재 제160호)

4) 정경원(2006). 『디자인경영』 (서울: 안그라픽스, 305쪽 참조.

제 2부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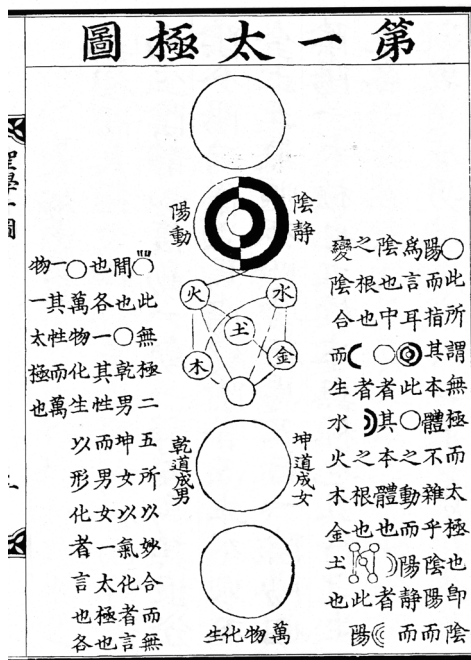
1장. '행실도'를 통한 조선시대의 정치와 유교

1_ '행실도' 에 나타난 유교와 성리학

1-1. 사단칠정과 삼강오륜

유교 사상이 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관찰하면서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규정되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김없이 사랑을 베푼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지극히 성실하고 도덕적 존재이며, 거기에는 도덕성이 숨어 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해 상생하는데 이 세상이 이러한 커다란 도덕적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도식화한 개념이 '태극(太極)'이다. 태극은 음과 양의 조화를 나타내며, 팔괘(八卦)는 그에 따른 생성론적 의미를 도식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상을 궁중에서 세자들에게 훈육하기도 했으며, 국기에 담아 표상으로 삼고 있다.



〈그림2〉 성학십도의 태극도(개인소장)

공자의 유교는 맹자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본디 성심은 선하다'는 주장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제각각의 얼굴 생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김의 큰 틀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도 공통점이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이(理)와 의(義)로서 태어나면서



〈그림3〉 초기 태극기(국립중앙박물관)

타고나는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의

로 인(人), 의(義), 예(禮), 지(智)를 꼽았다. 이것을 맹자는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인 사단(四端)⁵⁾과 인간이 사물을 접하면서 생기는 마음가짐인 칠정(七情)⁶⁾으로 구분하였다. 사단은 도덕적 성품을 의미해 윤리적 범주에 속하고, 사단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총칭해 인성론의 범주에 속해 각각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다가 송(宋) 대에 이르러 감정이 발현될 때 도덕적인 감정과 그렇지 못한 감정을 설명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사단과 칠정은 이후 유교의 도덕적 성품이 나타나는 점점으로 설명되면서 삼강오륜을 행하는 윤리의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윤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보편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질서가 되는 도덕성이며, 특수성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생활하는 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풍습과 사회 제도는 변해 가는데 도덕성 역시 신축성 있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성이 인류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명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1-2. 조선의 삼강오륜

조선은 왕권중심의 유교 국가였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고려의 장수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지만, 고려 말 선조들이 원나라의 관리로 지낸 점이 문제가 되어 조선 건국 전까지 지방 무관으로만 지낸 인물이다. 그런 그가 고려를 스스로 멸하기 위해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은 고려의 과도한 숭불정책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이 처음부터 부계(父系) 중심의 사회는 아니었다. 종교를 이어받지 않았을 뿐 사회 제도나 문화는 고스란히 고려의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유교화 되었던 배경에는 『논어(論語)』나 『맹자(孟子)』와 같은 경전과 『삼강행실도』나 『이륜행실도』, 『소학(小學)』 등과 같은 서적들이 중국으로부터 대량 들어와 영향을 미친 것이 한 몫을 했다.⁷⁾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유교의 시초는 중국의 공자(孔子)다. 공자는 유교의

5) 사단은 측은지심(惻隱之心,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옳지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으로 네 가지 도덕적 감정을 의미한다.

6) 칠정은 희(喜, 기쁨), 노(怒, 노여움), 애(哀, 슬픔), 구(懼, 두려움), 애(愛, 사랑), 오(惡, 미움), 욕(欲, 욕망)으로 일곱 가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가리킨다.

7) 주영하 외(2008).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65쪽 참조.

최고 덕목을 인(仁)으로 보았다. 인에 대한 정의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들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를 따르는 삶이 곧 인'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인은 곧 효(孝)이며 제(悌)라 하여 인의 근본을 가족적 결합의 윤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친(肉親) 사이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애정을 강조해⁸⁾ 공자는 인을 단순한 도덕 윤리 규범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시 어지러웠던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정치적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공자는 인을 실천하기 위한 덕목으로 의(義)를 내세워 인의(仁義)를 유교의 중심에 두었다. 또한 인간의 내면은 본래 선(善)하다는 도덕론을 펼쳐 덕치(德治)로서의 왕도론(王道論)을 주장했다. 이러한 윤리는 맹자(孟子)에 의해 심화되어 오륜(五倫)⁹⁾으로 이어졌다. 오륜의 덕목과 뜻은 다음과 같다.

- 부자유친(父子有親):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 군신유의(君臣有義):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 부부유별(夫婦有別):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 장유유서(長幼有序):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 봉우유신(朋友有信):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교 윤리는 한반도에도 전해져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이 뿌리를 내리고 조선 중후반에는 실학이 번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을 들 수 있다. 그는 비록 전라남도 강진(康津)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만 실학자로서 유교 윤리를 중히 여겨 옛 서적들에서 지방관들의 치민(治民)의 사례들을 뽑아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그 도리(道理)를 논하고 교육하는 데 노력했다. 유교 윤리의 중요성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이(李珥)가 편찬한 『격몽요결(擊蒙要訣)』¹⁰⁾에도 잘 나타나 있다.

8) 두산세계대백과(2001).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CD-ROM] V2001 (서울: 두산, 2001)

9) 오교(五敎)라고도 한다. 인생에 있어 대인 관계를 5가지로 정리하여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10) 1577년(선조 10) 이이(李珥) 지음. 1책. 저술 초부터 현재 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간행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독서에 관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소학』을 읽어 부모 · 형 · 임금 · 어른 · 스승 · 친우와의 도리를,

② 『대학』과 『대학훈문(大學感問)』을 읽어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바로 하며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도를,

③ 『논어』를 읽어 인(仁)을 구하여 자기를 위하고 본원(本源)이 되는 것을 함양할 것을,

④ 『맹자』를 읽어 의(義)와 이익을 밝게 분별하여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할 것을,

⑤ 『중용』을 읽어 성정(性情)의 덕이 미루어 극진하게 하는 공력과 바른 자리에 길러내는 오묘함을,

⑥ 『시경』을 읽어 성정의 그릇됨과 올바름 및 선악에 대한 드러냄과 경계함을,

⑦ 『예경』을 읽어 하늘의 도를 이치에 따라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과 사람이 지켜야 할 법칙의 정해진 제도를,

⑧ 『서경』을 읽어 중국 고대의 요순과 우왕 · 탕왕 · 문왕이 천하를 다스린 큰 줄기와 법

이외에도 대표적인 윤리서는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는데, 『효행록』¹¹⁾을 비롯해 『삼강행실도』, 『국조오례의』¹²⁾, 『오륜행실도』, 『육전조례의』¹³⁾ 등이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그 밖에 지방의 향교나 문중에서 지어 알려지지 않은 책들이 다수 있다.

행실도는 세종 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행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명	간행 연도	구성	내용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1431년 (세종 13)	3권 1책 목판본	삼강(三綱)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를 각각 35명씩 모두 105명을 뽑아 그 행적을 그림과 글로 칭송
선정삼강행실도* (選定三綱行實圖)	1490년 (성종 21)	1책 목판본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1/3로 줄여 간행
속삼강행실도 (續三綱行實圖)	1514년 (중종 9)	1책 필사본	『삼강행실도』 이후의 유명한 효자 36인, 충신 6인, 열녀 28인을 수록
이륜행실도 (二倫行實圖)	1518년 (중종 13) 저술 1730년 (영조 6) 간행	1책 목판본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이륜(二倫)을 지키도록 옛 사람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 그 행적을 수록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년 (광해군 9)	18권 18책 활자본	원집 권1~8은 효자, 권9는 충신, 권10~17은 열녀이고, 속부 1권은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인물 72명을 부록에 소개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1797년 (정조 21) 간행 1859년 (철종 10) 중간	5권 4책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의 두 책을 합하여 수정하고, 간행. 김홍도 화풍을 삼도

을,

⑨ 『역경』을 읽어 길흉·존망·진퇴·소장(消長)의 조짐을,

⑩ 『춘추』를 읽어 성인이 선(善)을 상주고 악을 벌하며 어떤 것은 누르고 어떤 것은 높여 뜻대로 다루는 글과 뜻을 체득하여 실천하라고 하였다.

11) 세종 10년(1428) 설순 지음. 고려 말의 권근 등이 엮은 효행에 관한 책으로 조선 전기 설순이 참고개정하였다.

12) 성종 5년(1474), 신숙주와 정척이 지음. 조선 초 국가나 왕실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 제정하여 편찬된 의례서이다. 오례(五禮)는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를 말한다.

13) 고종 4년(1867) 왕명에 의해 편찬. 『대전회통』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한다는 취지로, 육조(六曹)의 말은 일과 시행 규칙을 상세히 정리분류하여 실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으며, 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 본래 『삼강행실도』로 이름 지어져 있지만, 간행 시기와 내용이 축소되어 바뀌었으므로 앞에 ‘선정(選定)’이라는 말을 붙여 구분함.

이와 같이 조선 건국 초부터 후기까지 윤리서의 편찬이 지속된 것은 통치 이념으로서 유교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지막에 편찬된 『오륜행실도』는 그 동안 편찬되어 온 ‘행실도’ 류를 통합·수정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이것은 조선 초 충·효·열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념에 이륜(장유와 봉우)을 더해 왕과 신하의 관계뿐만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친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윤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 통치 이념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4〉 이륜행실도(김성일 종가)

2_행실도의 정치적 합목적성

2-1. 삼강행실도의 편찬

앞서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피력했지만 행실도는 효자, 열녀, 충신의 윤리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조선은 이것을 바탕

으로 국가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었다. 첫 ‘행실도’ 류의 간행은 『삼강행실도』가 처음으로 1431년(세종 13)에 임금이 집현전 직제학 설순에게 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에는 편찬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첫째, 교화가 쇠퇴하여 백성들이 군산부자부부의 큰 인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다 타고난 천성에 어두워서 항상 각박(刻薄)한 데 빠져 있다. 둘째, 간혹 훌륭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도 풍속과 습관이 달라져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기(興起)시키지 못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종은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했고, 효자충신열녀 중 본받을 만한 사례들을 뽑아 간략히 소개한 다음 그에 맞는 시와 그림을 넣어 목판본으로 제작토록 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매개로 백성들이 글을 읽고 그들의 행적을 본받아 ‘흠선(欽羨)하고 감탄하며 사모(思慕)’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를 ‘권면(勸勉)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세종의 구상은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고 풍속과 정치적 도리를 지켜 유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청장년기에는 사회에 진출해 관직에 올라서 충성스런 신하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건국 초 혼란했던 조선이 왕권중심으로 안정적인 국가 경영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세종은 『삼강행실도』가 편찬된 계기가 김화의 존속살인이라는 패륜으로 시작된 만큼 효에 관한 이야기 비중이 높다. 이것은 사건의 발단이 어찌되었던 『시경(詩經)』에서 얘기하는 ‘부수부자 자불가이불효(父雖不慈 子不可以不孝, 설령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이를 이유로 불효해서는 안 된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은 가정에서의 효가 유교의 근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 체계에 의해 『삼강행실도』에서는 부모를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 내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다소 끔직한 이야기도 다룰 수 있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부모를 위해서라면 복수를 위한 살인도 허용할 정도로 유교 이념을 지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충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충은 효를 사회적으로 증폭시킨 개념이기 때문이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충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며, 둘째는 국가에 대한 충성, 셋째는 왕이 옳지 못한 처사와 과오를 저질렀을 때 간언(諫言)하는 것이다. 이는 ‘불사이군(不事二君,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의 덕목인데 실제

14) 주영하 외(2008). 같은 책, 67쪽 참조.



〈그림6〉 『삼강행실도』의 비령돌진(丕寧突進) 그림
부분

론이고 사대부와 왕실에서도 이혼과 재혼이 성행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풍습에 기인한 것으로 세종은 『삼강행실도』에 「열녀도」를 삼강의 덕목으로 넣어 이것을 바로 잡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은 정절(貞節)을 인생의 큰 덕목으로 삼아 결혼 후 남편의 죽음이나 병으로 인해 개가(改嫁)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강제로 이를 행하도록 강요하면 신체 일부를 훼손하거나 자결(自決)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삼강행실도』 효충열 이야기의 서술 순서는 중국 이야기를 먼저 쓰고 다음 한국인 이야기를 실었으며, 시대 순으로 중국 고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왕(帝王)의 경우는 맨 앞에 배열하였다. 『삼강행실도』의 경우 인물의 선정은 총 330인 중 우리나라 인물이 54인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¹⁵⁾ 이 수치는 당시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팽배해 있던 시대상을 살펴본다면 높은 수치로 당시 세종이 독자적인 유교 통치 이념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로 『삼강행실도』에는 바른 정치를 하거나 전투에서 승리해 국토를 넓힌 장군의 이야기 보다는 국가와 임금에 충성한 신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¹⁵⁾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외에 열녀에 관한 이야기가 『삼강행실도』에 실려 있다. 삼강의 항목 중 ‘부위부강’이 있지만, 조선 초는 결혼을 하면 남성이 처가살이하는 것이 괴이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남녀 관계에서 거의 동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평민은 물론이고

15) 『삼강행실도』에 나라를 위한 공적인 일로 이야기가 포함된 것은 서달의 경우가 유일하다(徐達功業). 하지만 그의 이야기도 이후에 간행된 ‘선정삼강행실도’에는 빠져있어 조선시대의 충에 대한 사회상을 알 수 있다.

16) 이수연(2003). 같은 논문, 8쪽 참조.

2-2. 삼강행실도에 숨겨진 정치성

행실도는 세종의 애민정책의 일환으로 편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세종은 뛰어난 지략가로 임금의 백성과 신하를 위해 서적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을 증명하듯 세종은 『삼강행실도』가 간행된과 동시에 그의 종친과 신하들에게 배포했으며, 각 지방에도 내려 보내 윤리 교화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중종(中宗) 대에도 이어져 『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할 때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한 신하의 이야기를 넣을 것을 명령했다. 그 일화는 『중종실록』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림7〉 『동국삼강행실도』의 열부입강(烈婦入江)

『삼강행실』을 속찬(續撰)할 때에 조종조(祖宗朝) 및 반정(反正) 후의 일을 모두 수록하도록 하여라. (중략) 내가 경연(經筵)에서 사마온(司馬溫) 공(公)이 풍도(馮道)를 논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여자는 남편을 따르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면 죽더라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여자로서 부정하면 아무리 용모가 아름답고 길쌈 솜씨가 교묘하다 해도 어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신하로서 불충하면 아무리 재지(才智)가 많고 치행(治行)이 우수하다 해도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절(大節)이 이미 이지러졌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서문을 지을 때에 이 뜻을 서술해야 하리라.¹⁷⁾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리들의 비협조로 널리 전해지지 않아 성종 때에는 『삼강행실도』의 보급률을 측정해 관리들의 근무 점수를 산출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그러자 성과가 하나 둘씩 나타나 중종 때에는 서적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¹⁸⁾

이처럼 ‘행실도’ 류의 보급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성과를 보인 것과 같이

17) 『중종실록』 권20, 중종 9년 4월 2일.

18) 주영하 외(2008). 같은 책, 88쪽 참조.

각 가계(家系)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첫째 조선 초 고려로부터 이어 받은 양계(兩系) 사회에서 조선 중기로 접어들수록 부계(父系) 사회로 변했다는 것이다. 둘째 가부장적 가계도가 점차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불교에서 유교로 종교 의식이 변화되어 고려가 남긴 풍속이나 관습을 유교식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은 유교를 통해 사회의 기본 이념 시스템을 세웠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인 이념을 일반 백성들에게 까지 전달해 나갔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조선 왕조의 경영 철학이었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규범이 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학문에서도 나타나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베풀고 도덕성을 나타내듯이 자연에 속한 인간은 그에 순응하고 더불어 살아가 ‘천리(天理)와 인사(人事, 또는 인심 人心)는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다’¹⁹⁾는 유교적 이치는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기도 하다.

3장. 행실도 판화에 대한 정보 디자인적 해석

1_행실도의 조선시대 풍속 기록화로서 역할

1-1.조선의 정보 기록 문화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기록 문화의 전성기였다. 조선의 기록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앞서 피력한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조선의 건국 초 적극적인 편찬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러한 편찬 사업은 고려 때 보다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는 조선이 학문 교육과 연구 기관인 성균관과 집현전을 두었던 점으로만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중의 노력은 지방 유생들과 평민들에게 까지 이어져 민간의 편찬 사업으로 전개되었으며, 개인 문집이나 유학, 주자학 등과 관련된 서적들도 편찬되어 평민들에게 까지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전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남겨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기록서로 이순신의 『난중일기(亂中日記)』,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이 있겠다.

19) 기세춘(2007), 『묵점 기세춘 선생과 함께하는 성리학개론』 (서울: 바이북스), 84쪽 참조.

조선은 각종 행사나 지리 정보, 인물, 풍경 등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러한 궁중의 기록은 도화서(圖畫署)에서 담당했는데, 대표적인 기록화로 『원행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와 『정조대왕 능행 반차도(正祖大王 陵幸 班次圖)』, 『동궐도』 등이 있다. 이들 그림은 단순히 예술적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면밀히 기록해 후대에 남기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특히 정조 대에 그려진 『원행묘정리의궤』는 정조 자신의 효행과 애민정신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원행에 동원된 수많은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 왕권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²⁰⁾

이처럼 조선시대에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록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해 좀 더 원활한 유교적 통치 이념을 위한 수단이었다.

1-2. 조선의 풍속 기록화(記錄畵)와 '행실도'

조선은 정치문화사회적으로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기록들은 대부분 글이나 그림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그림으로 전해지고 있는 기록들은 당시의 풍습이나 복식, 화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실도'는 세종 조에서 시작해 조선 후기까지 편찬과 개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풍습의 변천과 복식, 화풍의 변화 과정 등을 통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명맥이 이어져 오면서 처음 편찬되었던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다음의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민손이 홑옷을 입다(민손단의 閔損單衣)'의 판화 부분이다. <그림 8>를 보면 조잡한 선들과 단순한 묘사로 그려진 반면, <그림 9>는 조선 중기 풍속화 고유의 세밀하고 인물들의 표정이 자세히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성리학을 비롯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통치 이념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고, 삼강오륜 역시 대부분 중국의 사례를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궁중의 여러 기록화를 도화서(圖畫署)에서 담당했다면, 궁중 그림과는 별개로 민간에서는 실력이 있는 몇몇 화가들이 백성들의 풍습을 담은 많은 작품을 남

20) KBS영상사업단(1998). "조선 최대 정치이벤트-화성 회갑잔치". 『KBS 역사스페셜』. KBS.



〈그림8〉 『삼강행실도』의
민손단의(閔損單衣)



〈그림9〉 『오륜행실도』의
민손단의(閔損單衣)

기기도 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이 있다. 이들은 모두 실력을 인정받아 궁중에서도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 조선 중기의 화가 김홍도는 『오륜행실도』 제작에도 깊이 관여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홍도는 1745년(영조 21)에 태어나 그의 스승인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다. 그는 29세에 영조의 어진을 그리며 —이 때 어린 정조의 초상화도 그렸다— 실력을 인정받아 왕명으로 금강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바치기도 했다. 그는 1781년(정조 5)과 1791년(정조 15) 두 차례에 걸쳐 정조의 어진을 그렸는데, 이렇게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그가 1797년(정조 21) 편찬된 국책사업인 『오륜행실도』의 판화 그림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근거는 정조와 강세황의 어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조는 “회사(繪事)에 속하는 일이면 모두 홍도에게 주장하게 했다” 고 할 만큼 그를 총애했으며, 또한 강세황은 ‘근대명수(近代名手)’ 또는 ‘우리나라 금세(今世)의 신필(神筆)’ 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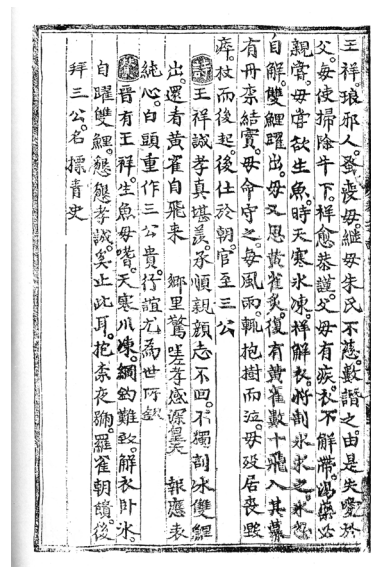
또한, ‘1790년 무렵 서울의 모습 중 광통교 기둥에는 그림을 걸어 놓고 팔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최근 도화서 고수들의 작품이며 속화(俗畵)를 탐닉하여 마치 그 묘하기가 살아있는 것과 같다’ 고 하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도화서 화원들의 풍속화 그림 제작은 일반적이었던 것임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김홍도(2005년 11월 30일) 편 참조.

을 알 수 있다.²²⁾ 따라서, 18세기 말 당시 궁중 도화서에서 제작한 『오륜행실도』는 당시 조선에서 유행했던 풍속화 회풍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2_ '행실도' 판화의 제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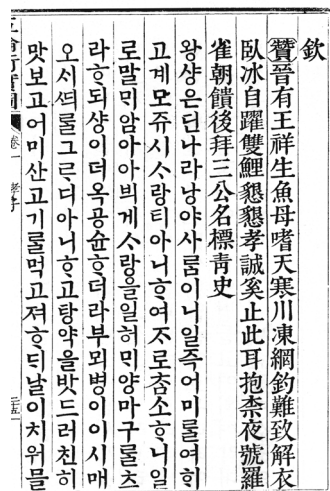
2-1. '행실도' 판화의 구성 분석



〈그림10〉 『삼강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冰) 글 부분

'행실도'류의 구성은 크게 글과 그림 부분으로 나뉜다. '행실도'류가 다른 서적들과 다르게 책의 이름 끝에 '서(書)', '록(錄)', '사(史)' 등을 붙이지 않고 '도(圖)'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책은 글 보다는 그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작하기 전 그림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글이나 시로써 기록되어 있다. 글의 표기 방법을 살펴보면, 세종 대에 만들어진 『삼강



〈그림11〉 『오륜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冰) 글 부분

22) 정보샘(2004), 『조선 후기 오륜행실도에 나타난 회풍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67쪽 참조.

행실도』는 한자로만 표기되었고, 이후 1481년(성종 21)에 편찬된 『선정삼강행실도』에는 한글이 보급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까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였다.

다음은 그림의 구조를 분석해 보자. 조선 중기 이후에 나온 『오륜행실도』를 제외한 다른 '행실도'류는 그림의 형식이 서사적 구조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오륜행실도』에 비해 글 내용 설명에 충실한 그림 표현방법으로 이야기의 시간 흐름에 따라 한 화면에 여러 장면을 담고 있다. 화면 구성은 시간 흐름으로 구성되 명확한 선을 그어 끊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 구성요소를 활용해 시공간을 분할하고 있다. <그림 12>를 예로 들어 보자.



<그림12> 『삼강행실도』 원각경부(元覺警父)

<그림 12>는 ‘원각(元覺)이 아버지를 깨우치다(元覺警父)’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각의 아버지는 오(悟)인데, 성품과 행실이 좋지 않았다. 원각의 할아버지가 늙고 또 병이 들었을 때, 원오는 아버지를 싫어했다. 그래서 원각에게 수레와 삼태기에 실어다 산속에 버리라고 했다. 원각은 거역할 수가 없었는데, 산속에 이르자, 삼태기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아버지 원오가 말하기를, “흉한 물건을 무엇에 쓰려느냐?” 라고 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남겨두었다가 아버지를 저다 버리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원오가 부끄러워 하니, 원각은 마침내 할아버지를 맞이하여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께 불효를 저지르려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깨우쳐 주었다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서사적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4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각 장면은 임의의 선을 그어 구분하지 않고 건물, 산, 구름을 표현한 선을 이용해 장면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구성법은 ‘원각경부’와 같이 상향 구성과 반대로 하향 구성, 불규칙 구성, 구성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에는 상향 구성 방식이 가장 많다. 또한 공간적 구성법은 지그재그 형으로 구성하고 있다.²³⁾ 『삼강행실도』에 상향 구성 방식이 많은 것은 당시 불교 미술의 영향

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륜행실도』와 그 이전의 ‘행실도’류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주인공 옆에 이름표를 새긴 것이다. 『오륜행실도』를 제외한 다른 ‘행실도’는 대부분 서사적 구성법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그림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따라서 그림만으로는 주인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인공 그림 옆에는 이름표를 새겨 〈그림 13〉과 같이 독자들이 주인공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도상성 및 코드화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자주 나타난다. 다음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효자편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그림13〉 주인공의 도상

첫째, ‘와병중’의 도상과 코드화는 부모님이 방 안에 누워 있는 것은 와병중이며, 앉아 있는 모습은 병중이 아니다. 〈그림 14〉
둘째, ‘단지(斷指)’ 및 할고(割股)의 도상과 코드화는 칼이 손이나 다리 주변에 있는 경우이다. 〈그림 15〉



〈그림14〉 부모의 와병 도상



〈그림15〉 단지 도상

셋째, ‘부모 봉양’의 도상과 코드화는, 부모님은 방안에 있고 자식은 섬돌 아래 꿇어서 음식을 올리는 모습이다. 〈그림 16〉
넷째, ‘무덤’의 도상과 코드화는 둥근 무덤의 형태이다. 〈그림 17〉
다섯째, ‘여묘살이’의 도상과 코드화는 싸리집이 있는 경우이다. 〈그림

23) 오정란(2008). 『삼강행실도의 만화기호학적 분석』 『인문언어 10』, 73쪽 참조.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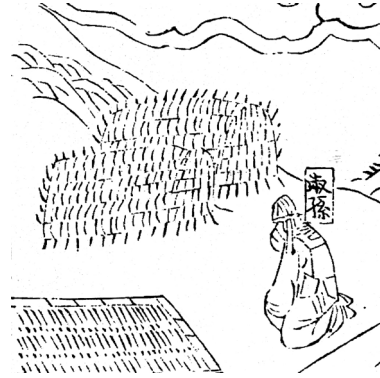
여섯째, ‘정문(旌門)’의 도상과 코드화는 홍살문과 같은 문의 형태이다.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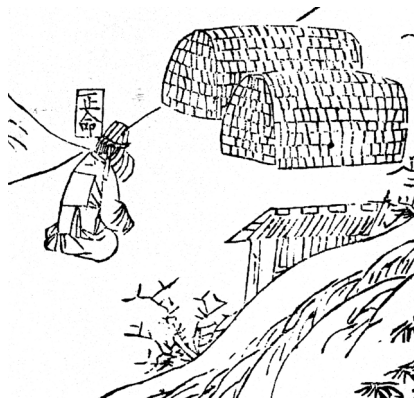
일곱째, ‘빈집’의 도상과 코드화는 부모가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²⁴⁾ 〈그림 20〉



〈그림16〉 부모 봉양의 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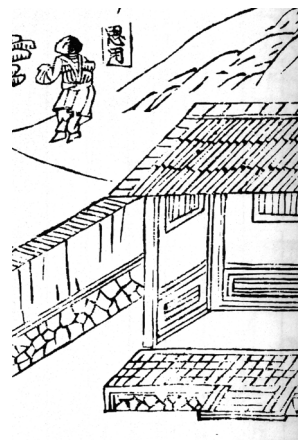
〈그림17〉 무덤의 도상



〈그림18〉 여묘살이의 도상



〈그림19〉 정문의 도상



〈그림20〉 부모의 사망 도상

24) 오정란(2008). 같은 논문, 82쪽 참조.

이러한 도상의 코드화는 반복되는 그림에 적용할 경우, 독자는 그것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며 별도의 교육 없이도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행실도 판화의 표현 기법

‘행실도’의 그림은 도화서 화공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목판 위에 올려 판각수들이 판본을 완성하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행실도’ 역시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 판화 표현기법이 변화해 갔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한 『삼강행실도』의 서사적 표현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먼저 『삼강행실도』 「효자도」에 실린 ‘왕상이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다(王祥剖氷, 왕상부빙)’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왕상(王祥)은 낭야(琅邪) 사람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계모 주씨(朱氏)가 자애롭지 않았다. 자주 그를 참소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잃게 되었고, 그래서 늘 쇠뿔을 치우도록 했지만, 왕상은 더욱 공경하고 조심했다. 부모가 병이 들자 띠를 풀지 않고 약을 끓이며 반드시 몸소 맛을 보았다. 어머니가 일찍이 산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워 얼음이 얼었다. 왕상이 옷을 벗고 얼음을 깨뜨려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 얼음이 문득 절로 녹더니, 두 마리 잉어가 뛰어나왔다. 어머니가 또 참새구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 다시 참새 수십 마리가 날아서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 붉



〈그림21〉

『삼강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氷)’

은 능금이 열매를 맺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니, 늘 비바람이 치면 문득 나무를 안고 울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는 동안 몸이 상하고 말랐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일어났다. 뒤에 조정에서 벼슬하여 직위가 삼공(三公)에 까지 이르렀다.²⁵⁾

〈그림 21〉을 보면 그림 하단에서 왕상이 얼음을 깨고 있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차례로 참새가 모여들고 오른쪽에는 부모가 집 안에 누워있다. 그 왼쪽에는 왕상이 쇠뿔

25) 설순 외. 『삼강행실도』, 윤호진(역)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8), 43쪽 참조.

을 치우는 장면이 있으며, 바로 위에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모습, 그림의 맨 위쪽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왕상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적의 편찬 목적은 가능한 많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순서대로 장면을 여러 쪽에 걸쳐 보여주게 되면 다른 이야기의 그림과 혼동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적 표현법은 한 화면에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이야기의 현실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선택은 판화의 회화적 표현에도 영향을 미쳐 정보 디자인적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었고, 현대의 정보 그래픽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표현 기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기법으로 한 화면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독자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정보를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만화에 대해 살펴보자. 대표적인 이야기로 삼국지를 비교해 보면, 삼국지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글로만 이루어진 삼국지를 읽다보면 인물들의 차림새나 성격, 행동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주인공 이외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인물 간의 관계를 혼동하게 된다. 따라서 각 인물간의 관계도를 그려가며 읽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림 22〉와 같이 만화로 나온 삼국지는 인물들의 생김이나 행동 등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와 같이 ‘행실도’는 글로만 전달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삽화를 넣었으며, 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림책으로 보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통한 이야기 전달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표현법이 바뀌게 된다.

정병모는 ‘행실도’의 그림 표현법이 각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에 대해 ‘행실도’류 중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판화 그림이 미적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는 것으로 적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삼강행실도』와 같이 다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둘째, 산수의 표현



〈그림 22〉 만화 『전략 삼국지』, 요코아마 미츠테루 작

은 추상화되었고, 셋째, 배경 설정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산의 표현이 기학학적으로 단순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어 현실성이 결여되고 대신 표현적인 경향이 부각되었다. 다섯째, 인물의 표현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배경처럼 간단하고 치졸해 진다. 여섯째, 화폭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삼강행실도』 판화와 같은 긴밀한 긴장감이 부족하고 느슨한 느낌이 든다.²⁶⁾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편찬된 시점과 관련이 깊은데,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전란으로 희생된 충신과 열녀의 넋을 기리고자 그 이야기들을 서둘러 수습하고 편찬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전란으로 인한 피폐해진 상황은 '행실도'에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삼강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적 본연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역시 조선의 뛰어난 화공들이 나서서 그린 그림인데 다른 '행실도'류 보다 작품성이 떨어진 것은 그림의 완성도 보다 전란 후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통치 기반을 가능한 빨리 수습하고자 했던 임금의 의지였을 것이다.

3_행실도의 지식정보 확산 방안

26) 정병모(1998), 「삼강행실도의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85, 216쪽 참조.

3-1.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행실도의 특징

‘행실도’는 지식정보 확산을 위해 편찬 시 몇 가지 기술적 장치를 했다. 그것은 내용과 그림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는 구전(口傳)을 위한 장치이다.

‘행실도’류는 앞서 피력한 바와 같이 유교 윤리를 전파하기 위한 교화서이다. 따라서 이야기도 충·효·열 3가지 분류로 한정되었고, 그에 따른 이야기를 독자들이 읽으며 반복된 주제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수록된 이야기 대부분의 결말은 삼강의 실천으로 인해 주인공이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또는 후세로 하여금 ‘의롭다’는 칭송을 받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러한 체계는 백성이 삼강을 ‘당위의 윤리’로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실천을 이끄는 자극제가 되었다. 어릴 적부터 ‘행실도’류의 이야기를 듣고 읽어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머릿 속에 각인했을 것이고, 이는 행동의 지침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의 결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음덕양보(蔭德陽報)²⁷⁾’, ‘감천(感天)²⁸⁾’, ‘복절(伏節)²⁹⁾’이 그것이다.³⁰⁾ 이러한 체계로 인해 조선시대 사람들은 삼강을 당연히 여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로 자리매김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구성이다. ‘행실도’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왕이나 벼슬아치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삼강오륜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가능한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야 했다. 왕의 효행에 관한 이야기나 도둑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도 삼강의 윤리를 깨닫고 갱생한다는 이야기를 보면, 삼강의 유교 윤리 정신은 신분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림에 나타난 구전을 위한 장치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왕상부빙’의 그림을 예로 들면, 왕상이 부모를 위해 효를 다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독자들이 그림을 보고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는 그림의 제목을 넣어 그것이 이야기의 대표성을 갖고 구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장치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언어에 있다. ‘행실도’류에는 그림과 함께 글이 실려 있는데 처음

27) 남이 모르게 덕행을 쌓은 사람은 훗날 그 보답을 버젓이 받는다는 뜻.

28)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함.

29)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지킴.

30) 이수연(2004). 같은 논문, 29쪽 참조.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를 제외하면 모든 '행실도'류에는 한글이 병기되어 있다. 그 이유는 세종 대의 『삼강행실도』는 한글이 반포되기 전에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 간행된 '행실도'들은 한자 뒤에 한글을 병기하거나 <그림 23> 처럼 그림 위쪽에 한글을 넣어 조선 중기로 갈수록 한글의 비중이 커져 많은 유교 관련 서적을 접할 수 있는 양반보다는 일반 백성이나 여성들을 위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삼강행실도』 (1481년, 서울역사박물관)

다섯 번째는 판화 그림이다. 『삼강행실도』가 처음 간행된 후 지속적으로 개찬과 편찬이 이루어진 만큼 판화 그림의 화풍은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

제작된 '행실도'라고 해도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흥미와 재미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윤리 교화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그림을 통해 나이, 신분, 문맹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육 대상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삼강행실도』와 『동국삼강행실도』 등의 그림은 비록 그림의 예술성이나 조악한 표현이 있지만 서사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반면, 『오륜행실도』에서는 서사적 표현은 모두 사라지고 단편적인 한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개편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삼강오륜과 관련된 교화서들이 편찬되고 일반 백성들의 학습도도 높아져 그림을 통해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그림의 예술적 표현과 세밀한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3-2.행실도 반포에 나타난 지식 정보의 확산

'행실도'류의 확산 방법은 세종의 반포교지를 보면 다른 서적들과 명확히 구분된다. 궁중에서 편찬된 대부분의 서적들이 일부 사대부들 사이에서 전해진 반면, 『삼강행실도』는 세종의 의지대로 일반 백성들에게 까지 전파되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대부분이 문맹자였음을 감안하면 그림을 통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과 글을 함께 둔 것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문맹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문맹자 사이에서 그림을 보며 구전되기를 바랐던 것이

다. 이렇게 구전을 반복할 경우, ‘행실도’ 이야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어 몇 개월 안에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세종의 계획이었다.

실제로 이것을 현재의 계산법에 적용해 보자. 당시의 인구가 약 533만 명³¹⁾이었음을 가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다단계 곱수의 법칙³²⁾에 대입하면 23일 후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세종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지식정보 전달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삼강행실도』는 처음에 제작될 때부터 필사본으로 제작하지 않았다. 이것은 첫 계획 단계부터 ‘행실도’를 널리 반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주물로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나 판각 기술이 뛰어나 많은 서적을 찍어야 할 경우 판본을 만들어 사용했다. ‘행실도’ 역시 많은 제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판각을 통해 대량생산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장정(裝幀) 기술의 발달은 이후에 나온 서적류에도 영향을 미쳐 판소리 문학이나 고대 소설의 전파에도 한 몫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효자와 열녀를 주제로 한 ‘심청전’이나 ‘춘향전’ 등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판소리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이정원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대표적인 창본이라 할 수 있는 조상현, 한애순의 창본과 완판 『심청전』 등에서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어술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이 사례들은 조상현이나 한애순의 고유한 더늠이라거나, 이본적 특색으로 지칭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여러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언술이다. 『춘향전』이나 『심청전』 모두에서 등장하는 이비(二妃)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은 『삼강행실도』 「열녀도」에서 맨 처음 소개되는 인물이고, 반첩여(班婕妤)는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이다. 심청이가 언급한 자로(子路)와 제영(緹榮), 왕상(王祥)과 곽거(郭巨)도 『삼강행실도』 「효자도」에 실린 인물이다.³³⁾

31) 한영우(1977). 「조선 전기 호구 총수에 대하여」 『인구와 생활 환경』, 서울대학교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32) 다단계 곱수의 공식은 $2^n - 1$, n 은 임의의 기간, 그러므로 $2^{23} - 1 = 8,388,607$ 일

33) 이정원(2008). 「삼강의 권위적 지식이 판소리 문학에 수용된 양상」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168쪽 참조.

이러한 점을 미루어 『춘향전』의 춘향이 이몽룡을 위해 변사또의 숙청을 거부하고 죽을 날을 기다린 점, 『심청전』의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임당수에 빠진 점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판소리 문학이 아니다. 이것은 당시의 임금을 비롯한 사대부가와 일반 백성들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이야기의 주제이고, 조선의 사회에 유교의 지식정보가 넓게 공유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제 3부 결 론

1장. 행동 교화를 위한 지식정보 디자인으로서의 행실도

1_삼강오륜의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유교적 사람 경영

조선을 세운 태조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그 종교의 부패와 왕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도 그가 유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선이 유교를 숭상(崇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왕자의 난’ 이 일어나 유교 이념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민생도 안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권을 이어 받은 세종은 흥흥한 민심을 살피고 왕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백성들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행실도’의 편찬은 그 사업의 일환이었다.

비록 세종이 ‘김화의 패륜 사건’을 계기로 ‘행실도’의 편찬 사업을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불교를 숭배해 오던 백성들에게 유교적 윤리관을 단시간에 학습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은 삼강을 대표하는 충·효·열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세종은 이 세 가지 중 ‘효’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효’를 통해 어릴 때 체득한 가정의 위계질서는 나아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



〈그림24〉『삼강행실도』 표지(김영한 소장)



〈그림25〉『오륜행실도』 표지(호암미술관)

때문이다.

삼강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다. 이 규범은 법과 같이 부적절한 행위 후에 그 행위를 벌하기 위한 법과 같은 기준이 아니다. 규범은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보다 앞서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하며, 세종은 그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교 윤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시켜 왕권 중심의 통치 이념을 굳건히 하기 위한 유교적 사람 경영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세종 대의 『삼강행실도』를 비롯해 정조 대의 『오륜행실도』까지 조선 왕조의 대를 이어 지속되었다.

2_그림을 통한 효과적인 지식정보 전달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은 그림이었다. 구체적 형상의 그림 정보가 점점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보는 암호 또는 기호화 되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은 백성들을 문맹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이 조선의 임금 세종이다. 세종이 ‘김화의 사건’으로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지시했지만 그는 백성들의 교육과 민생 안정, 윤리 교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벌였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지방 사대부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권력을 튼튼하게 하는 결과를 갖도록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림과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 중심의 윤리이념을 국가 통치 시스템과 연결시킨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행실도’ 류는 단순히 그림과 글로 엮어진 서적이 아니다. 그림은 대다수 문맹으로 구성된 조선의 백성들을 유교 윤리 이념을 통해 교육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림은 그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다. 비록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화풍이 변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앞서 편찬된 서적들과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 지식정보가 일반 백성들에게 까지 널리 알려져 그림을 통한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예술성을 강조한 그림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림을 통한 지식정보의 전달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 중 『오륜행실도』 편찬 이전 까지 그려졌던 서사적 구성방식은 한 화면에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어 그림만을 보고도 독자가 그 사건의 전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러한 표현법을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 그래픽(information

graphic)’이라 명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서 언급했던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왕상부빙’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림26〉 『삼강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氷)’



〈그림27〉 『오륜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氷)’

3_조선시대 신속한 지식정보 전달 방안 모색

인류가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기록할 정보와 매체가 필요한데, 과거 전자적 신호를 통한 정보 기록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날로그에 의한 시각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선사 시대 동굴 벽화는 그림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문자나 언어가 없어도 쉽게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림은 정보를 기록하는데 공간적 제약이 있었고 정보 전달에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문자가 생성되고 종이 형태의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기록 매체가 발명되면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보는 기호화되었고, 그것이 문자로 체계화되면서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보다 후에 만들어진 『오륜행실도』가 서사적 표현 보다는 예술적 가치와 복잡하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분화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변화는 여러 곳

에서 발견되는데, 『삼강행실도』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인공 그림 옆에 있던 이름표가 사라진 점, 서사적 구성 방식으로 표현되던 그림을 그 중 대표성을 띤 한 장면으로 묘사한 점, 한자와 언해 부분을 병기함으로 인해 글의 양이 많아진 점이 그렇다.

이처럼 ‘행실도’ 류의 지식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한 서사적 그림의 형식에서 벗어나 글로써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해 지식정보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 했다. 둘째, 한자와 한글 언해를 병기해 학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경계를 허물어 가능한 많은 독자층이 서적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따라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초기 중국의 사례가 많았던 반면,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많이 넣어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넷째, 판화 그림의 예술성을 배가시켜 독자들에게 참신한 그림과 화풍으로 흥미를 유발시켜 독자들이 서로 찾아서 읽도록 했다.

이러한 서적의 편찬은 유교를 전파시키기 위해 억지로 주입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가 재미를 느끼고 읽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의 취향이나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상품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이후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처럼 당시 조선의 왕실은 이러한 시스템을 읽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제 4부

대표 디자인 추천

1.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목판본, 설순(俔循) 외, 김영한 소장.



조선은 유교 국가다. 유교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특히 삼강은 효자, 열녀, 충신의 윤리를 훈육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조선은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태조(太祖) 이성계는 고려의 종교적·정치적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 유교를 국교로 삼고,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몇몇 신하들은 국가를 정비하는데 유교 이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데 힘썼다. 하지만 세종이 임금이 되기 전 왕실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왕자들 간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었던 점은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 중 삼강인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은 가장 시급하게 교화되어야 할 덕목이었다.

물론, 세종은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기 전 이와 비슷한 유교에 관한 다양한 서적을 편찬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서적이 『주자가례』로 주자의 유교적 효와 예법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이 책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백성이 읽기에는 불편했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428년 ‘김화(金禾)의 패륜 사건’이 세종에게 까지 알려지자 세종은 이를 임금의 부덕한 탓으로 여기고 새로운 윤리 교화서를 편찬할 것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삼강행실도』다. 이처럼 『삼강행실도』는 조선 후기 『오륜행실도』가 새롭게 편찬되기 전까지 조선의 유교 윤리서로서 그

시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강행실도』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효자에 관한 이야기이며, 다음이 충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세종의 정치관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풍속과 정치적 도리를 지켜 유소년기에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그 백성이 성장해 창장년기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관직에 올라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는 건국 초 혼란했던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왕권중심의 안정적인 국가 경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종의 의지는 내용의 표현 방법과 전파에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편찬된 내용은 글과 그림 부분으로 나뉘어 만들어 졌으며, 그림을 중심에 두었던 것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지이기도 하다. 글을 그림과 함께 보여줄 경우 사람은 그림을 통해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역시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또한 책은 처음부터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여러 권의 책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것은 콘텐츠의 대량 생산과 전파를 위한 것으로 다단계 전달 방법을 위한 당시의 최선책이었다. 이처럼 당시 조선은 유교를 통한 ‘사람 경영’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누구나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림 중심으로 책을 편찬했다.
- 유교 윤리의 빠른 지식정보 전달을 위해 편찬 기획 단계부터 목판본으로 제작할 것을 계획했다.
- 개개인의 윤리 교화를 통한 도덕적 판단력 향상과 윤리적 ‘사람 경영’을 통해 당시 혼란했던 국내 정세에 유교 중심의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활용하였다.
- 『삼강행실도』는 초기 조선의 여건상 중국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급적 조선 이전 시대의 사례를 넣어 자주국가로서의 편찬의지를 담았다.

2.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목판본, 이병모(李秉模) 외. 호암미술관 소장.



세종 대에 만들어진 『삼강행실도』는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이 책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도 쉽게 글을 익히고 읽을 수 있게 한 한글의 힘이었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에서 『오륜행실도』는 『삼강행실도』보다 자주적 성향이 강화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충성과 열녀에 관한 콘텐츠가 증가하였고, 광해군은 이것을 「행실도」로 남기도록 하였다. 이 때 선대의 「행실도」를 개찬해 만든 것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이며, 이 때부터 중국의 이야기는 대부분 삭제되고, 조선의 이야기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콘텐츠의 증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콘텐츠들로 「행실도」의 내용을 보강해 줬지만, 점차 삼강과 함께 이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된다. 이륜은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봉우유신(朋友有信)에 관한 이야기로 충효열과는 별개로 윗 사람과 아랫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장유유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도리(봉우유신) 또한 조선의 '사람 경영'과 유교적 통치이념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오륜행실도』는 1518년(중종 13)에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 내용을 선별해 새롭게 편찬한 윤리 교화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것은 선대에 있었던 통치 이념이 조선 중기와 후기까지 이어졌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이념의 추가로 인한 유교

적 국가 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오률행실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18권 18책으로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비해 5권 4책으로 줄어든 것은 많은 콘텐츠가 삭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내용의 반복은 책을 읽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콘텐츠를 기억하는 데에도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률행실도』의 콘텐츠는 수많은 심사를 거쳐 선별된 이야기이며, 당시 조선 편찬사업에 있어 우수한 정보 편집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본문에 한글을 포함시켜 이전에 편찬된 「행실도」류 보다 일반 백성들의 지식정보 습득을 위해 배려했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다수 포함시켜 자주적 성향을 배가시켰다.
- 유교적 국가 운영 시스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이륜에 관한 이야기를 다수 포함시켰다.
- 보다 명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전 「행실도」의 많은 이야기를 선별해 정보 편집을 했다.

3.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冰)’



「행실도」는 『삼강행실도』가 조선 초 편찬된 후, 조선 후기 『오륜행실도』가 편찬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교적 국가 운영 시스템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먼저 콘텐츠에 변화가 생겨 중국의 이야기는 대부분 삭제되었고, 한글 창제로 인한 이야기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행실도」에는 정보 전달에 대한 몇 가지 숨은 기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판화의 표현 기법에 있다.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것은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전자의 이야기에서 주요 내용만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 전달 목적에 따른 변화를 의미하는데, 전자의 경우 초기에 만들어진 「행실도」이며, 당시 한글이 보급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 백성들도 비교적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화법으로 그려져야 했다. 따라서 내용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서사적 표현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법의 변화는 조선 초기보다 한글 보급과 일반 백성에 대한 학습이 확대되면서 문맹률이 줄었고, 표현법 보다는 그림의 예술성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름표의 사용이다. 비록 『오륜행실도』에서는 대표적 상황의 표현으로 이름표가 사라졌지만, 『삼강행실도』에서는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고, 반복된 주인공의 등장으로 독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름표를 삽입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콘텐츠 내용을 빨리 습득하고 기억하도록 배려하며, 명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장치였다.

세 번째는 그림의 예술성에 있다. 『오륜행실도』는 『삼강행실도』에 비해

그림이 단조로워졌지만 그림의 표현력은 향상되었다. 『오륜행실도』는 당시 유명했던 김홍도의 작품으로 당시 도화서 그림은 작품성으로도 인정을 받았었다. 당시 김홍도의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렸던 것을 감안하면 그가 그린 『오륜행실도』는 베스트셀러로서 『삼강행실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전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일정한 상황을 암시하는 코드가 있다. 대표적으로 ‘왕상부빙’의 경우, 부모의 죽음을 암시하는 도상으로 관이나 빈집을 그려 넣었고, 누워있는 부모를 통해 병이 든 상황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독자들에게 반복 노출되면서 독자는 이것을 학습하게 되고, 별도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실도」는 내용 면에서 변했지만, 그림 표현법에 있어서도 한층 고급스런 화법으로 그려져 사람들이 소장하거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행실도」가 다른 서적들과 달리 책의 이름에 ‘도(圖)’자를 넣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문맹이 많았던 조선에서 가장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그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림은 사람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해도 빨랐다. 이처럼 조선 왕조가 「행실도」의 그림 표현법에 각별히 신경썼던 이유는, 그림책이었던 「행실도」가 조선의 유교적 국가 운영 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자인 유전자적 가치

- 그림 표현법의 변화를 통해 설명 중심의 그림에서 예술적 표현 중심으로 변화했다. 이것으로 그림 정보 전달의 목적이 서사적 설명보다 명확한 상황 설명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삼강행실도』에서는 그림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름표 형식을 취했다.
- 『삼강행실도』 그림의 서사적 표현법은 시간과 공간을 한 화면에서 보여줘 명확한 스토리 전개와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삼강행실도』는 일정한 도상의 반복을 통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오륜행실도』는 예술적 그림으로 소장 가치를 높여 정보의 축적과 전달력을 높였다.
- 『오륜행실도』의 그림은 강제적인 유교 교화서로서의 「행실도」가 아닌 그림을 보며 자발적으로 독서를 즐기고 정보를 전달하는 자생적 유교 교화서였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2009). 『유교적 사유와 삶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 기세춘(2007). 『묵점 기세춘 선생과 함께하는 성리학개론 - 하』. 서울: 바이북스.
- 박홍식, 예문동양사상연구원(2005). 『한국의 사상가 10인 - 다산 정약용』. 서울: 예문서원.
- 서울역사박물관(2002).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개관기념특별전.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설순 외(1982).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역).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2). 『삼강행실도』 「충신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역).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982). 『삼강행실도』 「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역).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008). 『삼강행실도』. 윤호진(역).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이병모 외(2006). 『역주 오륜행실도』. 황문환, 장윤희, 이현희, 송철의(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항(2009). 『성학십도 - 열 가지 그림으로 읽는 성리학』. 최영갑(역). 서울: 풀빛.
- 정경원(2006). 『디자인정영』. 서울: 안그라픽스.
- 주영하, 옥영정, 전경목, 윤진영, 이정원(2008).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진희권(2008). 『조선조 초기의 유교적 국가이념과 국가질서』.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한국사상사연구회(2003). 『도설로 보는 한국 유학』. 서울: 예문서원.

논문 및 연구지

- 김진영(1998). “『행실도』의 전기와 판화의 상관성 -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22』. 부산: 한국문화학회.
- 여찬영(2005).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열녀편」 비교 연구 - 체제 및 한문 원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경북 구미: 언어과학회.
- 오정란(2008). “『삼강행실도』의 만화기호학적 분석. 『인문언어 10』. 서울: 국제언어인문학회.
- 이수연(2004). “조선시대 유교 윤리서 연구 - 세종조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보샘(2004). “조선후기 『오륜행실도』에 나타난 화풍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우(2009). “『오륜행실도』 도상의 삽화적 성격과 그 함의 - 『삼강행실도』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집』. 서울: 한국고전연구학회.
- 최윤철(2009). “조선시대 행실도 판화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 10』.

서울: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10

최정란(2009). “조선시대 「행실도」의 목판화 양식에 대한 연구” .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일영(2007). “광해군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연구”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영인본

유근 외(1617). 『동국삼강행실도』 영인본. 학선재.

이병모 외(1797). 『오륜행실도』 영인본. 학선재.

이황(1568). 『성학십도』 영인본. 학선재.

이미지목록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비고
그림 1	『삼강행실도』 「열녀편」 표지와 내지(양산시 유형문화재 제160호)	문화재청 홈페이지	양산시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21,01600000,38
그림 2	『성학십도』의 태극도	학선재 서적	개인 소장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388)	http://andong.grandculture.net/Contents/In dex?contents_id=GC02401057
그림 3	초기 태극기	동아일보 홈페이지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8130055
그림 4	『이륜행실도』 (김성일 증가)	문화재청 홈페이지	개인 소장 (김성일 증가, 경북 안동)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2,09050000,37
그림 5	『삼강행실도』의 '석진단지(石珍斷指)' 그림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규장각	
그림 6	『삼강행실도』의 '비령돌진(丕寧突進)' 그림	삼강행실도-충성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규장각	
그림 7	『동국삼강행실도』의 '열부입강(烈婦入江)' 그림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규장각	
그림 8	『삼강행실도』의 '민손단의(閔損單衣)' 그림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규장각	
그림 9	『오륜행실도』의 '민손단의(閔損單衣)' 그림	오륜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0	『삼강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冰)' 글 부분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규장각	
그림 11	『오륜행실도』의 '왕상부빙(王祥剖冰)' 글 부분	오륜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Detail.jsp?menuID=001005001&relicID=3193&relicDetail

				D=12769&naver=Y
그림 12	『삼강행실도』 원각경부(元覺警父)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그림 13	주인공의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4	부모의 외병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5	단지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6	부모 봉양의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7	무덤의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8	여묘살이의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19	정문의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20	부모의 사망 도상	동국삼강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그림 21	『삼강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冰)’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그림 22	만화 『전략 삼국지』, 요코야마 미츠테루 작	『전략 삼국지』		
그림 23	『삼강행실도』 (148 1년, 서울역사박물관)	『조선 여인의 삶과 문화』 전 도록,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 관	
그림 24	『삼강행실도』 표지(김영한 소장)	네이버 블로그	대전시 문화재 자료 19호	http://blog.naver.com/nocleaf?Redirect=Log&logNo=90026275816
그림 25	『오륜행실도』 표지(호암미술관)	네이버 백과사전	호암미술관	http://100.naver.com/100.nhn?docid=115072
그림 26	『삼강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冰)’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그림 27	『오륜행실도』 ‘왕상부빙(王祥剖冰)’	오륜행실도, 학선재 영인본		

행실도의 주요 소장처

소장기관	소장 자료	비고
양산시청	삼강행실도	http://www.yangsan.go.kr
국립중앙박물관	오륜행실도	http://www.museum.go.kr
김성일 종가 (경북 안동)	이륜행실도	
호암미술관	오륜행실도(채색본)	http://hoam.samsungfoundation.org/

명재윤증연구소	오륜행실도	http://blog.naver.com/wolf332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속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동국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http://e-kyujanggak.snu.ac.kr/
김영한 소장 (대전문화대자료 19호)	삼강행실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중리동 165-1
서울역사박물관	삼강행실도	http://www.museum.seoul.kr/